

GIST 김호범 교수, 한국고분자학회 '신진학술상' 수상

-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,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·소자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 인정
- 지난해 '제7회 한국도레이 펠로십' 수상자로 선정되며 창의적 연구성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받아



▲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가 한국고분자학회의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은 고분자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신진과학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,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미래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한다.

이번 수상에서 김호범 교수는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 및 소자 개발이라는 첨단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온 점, 그리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학협력의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.

특히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활용해 발광소자, 태양전지, 뉴로모픽 소자 등 핵심 전자소자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김 교수의 연구 성과는 향후 고성능, 고안정성, 저전력 소자 구현을 위한 필수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주관한 '제7회 한국도레이 펠로십' 수상자로 선정되며,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.

시상식은 지난 4월 17일(목),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'2025년도 춘계정기총회' 중 진행되었으며,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다.



▲ (왼쪽부터)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권용구 교수, GIST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,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강기훈 교수

한편, 한국고분자학회는 1976년 설립 이후 고분자 과학 및 공학의 학술 발전과 산업 기술 보급을 선도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고분자 전문 학회이다.

현재 4,5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, 연간 약 2,500편의 학술 발표가 이루어질 정도로 활발한 연구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.